

2020년도 제12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2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0. 10. 29(목) 13:00
- 회의장소 : 아창제 사무국 회의실

2020도 제12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32작품으로, 초연부문 24작품, 재연부문 8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블라인드심사),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많은 작곡가들이 출품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남에 따라 지원 작품의 성향도 다양화 양상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전통적 음악 어법, 전통음악의 장르, 한국적 정서, 역사 등 한국인 작곡가로서 “한국“을 표현하려는 작품이 많았던 것이 올해 지원작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작품이 지원된 만큼 다양한 모습의 작품이 선보였으나 작품간 음악적 질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관현악기법적 다양성이 미흡한 작품도 다수 있었으며 현대성과 전통성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작품도 있었다. 또한 비록 소수의 작품이지만 각 악기군별 음악적 기능의 부여, 관현악의 음향적 색채감, 전통적 어법의 창의적 변용, 작곡가 만의 개성적인 아이디어를 하나의 악곡 안에서 조직해내기 위한 치열함이 엿보이는 작품들 또한 있었다.

심의위원 중에는 “작곡“이라는 서양적 창작 양식에 갖혀 “국악관현악“이 주는 고유의 울림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작품이 다수 보였음을 아쉬워한 이도 있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음악적 경향에 못지 않게 작곡가의 개성적 실험 또한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에는 작곡가의 아이디어, 국악관현악 편성의 필요성, 연주자에 대한 배려가 관현악 기법보다 우선시되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다.

또한, 초연출품작 중에 심의위원의 관심을 끈 작품이 있었으나 이미 발표된 작품과 현저히 같은 점이 있어 배제하였다. (기 연주된 작품, 편성확장 및 편곡 은 재연으로 구분된다) 작곡가들은 응모에 맞게 초연 및 재연 분야를 선택하여 선정의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

선정된 작품들은 국악관현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품들이며, 협연악기의 표현력과 실험적 시도와 균형감을 기대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전반적으로 국악기에 대한 이해도와 국악적 음향과의 조화, 작곡가의 작곡기법이 잘 조화된 작품이다.

제12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심의위원 일동